

제4차 도시재생간담회 회의록

16.09.28.

발제 1. 협치성북 분야별 간담회 진행 현황 공유 / 도시재생분야 - 김기민

1차 민간 집담회 : 08.30.

2차 민간 집담회 : 10.05. 예정

내용 : 발제 자료 참조.

<토론>

조은득 : 서울시 협치 추진체계인 지역사회혁신계획과 시민협력플랫폼에 대해 설명해 달라.

김기민 : 지역사회혁신계획은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고, 시민협력플랫폼은 그를 위해 민간주체를 형성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사업이다.

조은득 : '협치성북 정책현황 공유를 위한 민간 기획단'이 나중에 공식적 협치 기관으로 발전할 전망을 갖고 있는가?

김기민 : 전혀 아니다. 협치성북 민간 기획단'으로 이름을 정하지 않고 이렇게 길게 정한 이유도 어떤 대표성을 가진 조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협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한 것이다. 정책공유활동을 계속 진행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 대표성을 가진 단체를 만들려면 '민간 기획단'은 해체하고 새롭게 만들게 될 것이다.

박학룡 : 협치 가능한 시민력 만들기가 관건

정천용 : 시민협력플랫폼 사업을 먼저 진행하고 어느 정도 주체가 형성된 후에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추진하는 게 좋았을 뻔했다.

김기민 : 그렇다. 지금은 협치 기반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대표성에 연연하지 않고 다양한 주체들을 만나고 있음.

발제 2. 배정학 장수마을 주민협의회 대표

2013년 마을박물관 등 거점공간 서울시 제공. 3년 정도 주민협의회 운영. 주민협의회 참가자 중 고령자가 많아서 참여 어려운 부분이 고민. 젊은 구성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들의 주거 안정이 관건. 공모사업 실행 부담. 혜택 받지 못하는 주민들은 무관심.

관에서 주민협의회를 지원하는 방식이 사업을 맡기고 결과를 관리하는 방식 위주인데, 운영상의 여러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역할이 아쉬움.

구조 : 총회 / 월례 운영위원회

<토론>

조은득 : 주민협의회 구성원은 안정적인지?

배정학 : 당연직 외에는 변동이 큼.

정천용 : 운영위원회의 위상, 역할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배정학 : 총회 다음으로 마을 사업을 책임지는 역할이지만 실제 운영이 원활하지는 못함.

정천용 : 주민협의회 활성화가 쉽지 않은데, 방안이 있는지?

박학룡 : 해결할 과제가 뚜렷한 상황에서는 활발하게 운영되었지만, 과제가 해결된 후에는 점점 결속력이 약해지고 있음. 공모사업 등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들 사이

에 격차가 생기고 있는 상황. 장수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고민해야 할 문제.

조은득 : 마을기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배정학 : 마을탐방 등 여러 사업을 통해 기금이 모이고 있으나 마을 공통의 관심사가 많지 않아 활발히 운영되고 있지는 않음. 골목기금 형태로 조성하면 관심이 커질 것으로 기대.

조은득, 정천용 : 주민 공용 공간 운영은?

배정학 : 다시 원래대로 쓰레기가 쌓이고 있음.

박학룡 : 지속적으로 사용할 사람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음.

발제 3. 조은득 장위13구역 도시재생사업

내용 : 발제 자료 참조

<토론>

전광철 : '선택권'에 대해 보충 설명 필요.

조은득 :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선택권. 주민 스스로 제안한 사업을 관의 지원체계 속에서 성공적으로 진행해보는 경험이 축적되는 것이 중요.

김기민 : 도시재생지역에서 주민공모사업의 취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되어 공부가 되었음.

갈등이 심한 도시재생지역의 경우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조은득 : 마을공동체 사업 담당자들이 도시재생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

박학룡 : 마무리 할 시간. 주민 역량을 키우는 것이 관건. 특히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을 등장시키고 그들이 서로 소통하며 지역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활동이 중요.